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백화수각(白花水閣)

고시조집인 <해동가요(海東歌謠)>와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전하는 다정가(多情歌)라고 불리우는 시조가 있다. 고려말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이조년(李兆年)이 지었는데, 시조 가운데서도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시조 가운데 하나이다. 시조는 다음과 같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 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두견새)야 알라미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야/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시조가 뛰어난 점은 시각적, 청각적 대비의 효과를 최대한 이끈 점이다. 특히 배꽃과 흰 달빛, 은하수의 세 가지 흰색을 강렬히 표현한 점은,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뛰어난 관점을 보이고 있다.

1963년 5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관동기행(關東紀行)이라는 글이 실렸다.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홍승면이 서양화가 윤중식과 함께 영동지방을 여행한 기록인데, 낙산사 흥예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좌우가 모두 과수원으로 배나무 숲에 배꽃이 가득하다고 쓰여 있다.

양양에선 여러 과수원들에서 낙산돌배를 키우고 있는데, 1915년에 당시 낙산사 주지가 가장 오래된 배나무에서 씨를 받아 개량해서 심은 낙산돌배 시조목이 흥예문앞에 살고 있어서, 조선 성종 때 주요과수로 지정되어 나라에 돌배를 진상했다는 기록을 살아서 증명하고 있다.

낙산사 창건주인 의상(義相)스님은 중국 화엄종 제2조 지엄화상(智嚴和尚)의 문하에서 화엄학을 배워 670년 귀국해 낙산사 흥련암에서 지내면서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을 쓰고,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기 위해 간절히 발원을 드렸다.

의상 대사의 관음신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글은 총 261자로 된 간결한 명문(名文)으로,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관세음에 대한 귀의와 기쁨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들의 본사이신 백화도량 관세음께 / 머리 숙여 조아리며 지성귀의 하옵나니.

저 하늘의 밝은 달이 온누리를 비추면서 / 강물마다 그림자를 남김없이 나무듯이 집착해도 언젠가는 부질없이 사라지니 / 지은 대로 받는 과보 의지하여 사는 세상 -중략(中略)-

온갖 공포 여의고서 몸과 마음 안락하며 / 잘 나사이 거룩하온 백화도량 왕생하여.”

발원문을 보면 백화도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그러면, 이 백화(白花), 즉 흰 꽃은 도대체



낙산사 사천왕문 앞에 있는 백화수각

백화는 '배 꽃'을 의미해 팔만대장경도 돌배나무

어떤 꽃이었을까? 낙산사에 성종 때 이미 돌배나무 과수원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돌배나무가 무성했다는 추론을 가정해 보았을 때, 세상의 꽃들 중에서 가장 하얀 꽃중 하나인 배꽃일 가능성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목판 팔만여장의 대부분이 산뱃나무와 돌배나무로 만든 것이다. 낙산사 돌배는 이렇게 불연(佛緣)이 깊다. 물론 목판본중에도 백화도량발원문도 들어 있다.

속리산 범주사에 가면, 석련지(石蓮池)라는 국보 제64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조물인 수각(水閣, 물마시는 곳)이 아직도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다. 상당히 부서진 상태라 쇠로 만든 격쇠로 지탱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물을 담아 연꽃을 띄워 두었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낙산사 범주 정법 스님을 시봉하며 불사를 수행하면서 사천왕문 앞에 있는 백화수각을 디자인한 바 있다. 전서(篆書)의 꽃 화자(花字)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 동해바다, 삼죽섬, 교룡, 정룡 등 문양을 넣고, 팔정도도와 삼법인 등을 의미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조각은 석장인 권영진 씨가 하고, 익산 황동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발군의 솜씨를 보여주어 무척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 낙산사에 가시면, 꼭 감로수 한 잔을 드시길 바란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또 한 번 계절이 바뀌려 한다. 다한 계절은 새들이 남아간 길처럼 사라져가고, 다가오는 계절은 그리운 사람의 이름처럼 멀고도 가깝다. 멀어져 가는 것과 다가오는 것 사이에서 고단한 걸음은 또 한 번 길을 잃는다. 뜨거운 시 한 줄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람으로 눈물을 닦아 내도 길은 없는, 가을이다. '이 가을 저녁,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씨>, 일본의 한 줄짜리 시(하이쿠)다. 인간으로 태어나 길을 잃고,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 가

을. 산사의 숲은 점점 험거워지고, 산새는 숲에 맞춰 울기 시작했다. 어찌해야 할까. 숲도 산새도 갈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누구의 것인지. 땀뿜 위의 고무신은 쉽게 길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 가을을 쉽게 나서지 못하리.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월봉책헌 선사의 '유거(幽居)'

상에 매이지 않고 집착함 없이

久住烟霞裏 (구주연하리) 昭蔬世味輕 (답소세미경) 床寒知霧濕 (상한지무습) 庭滑認苔生 (정활인태생) 峰月應軒白 (봉월영헌백) 山泉入戶鳴 (산천입호명) 幽居雖不貴 (유거수불귀) 只欲便羈名 (지욕변명) 오랫동안 안개 노을 속에 살며 푸성귀 먹음에 세상의 맛 대수롭잖네. 침상이 차가우니 안개가 축축함을 알겠고 물이 미끄러우니 이끼가 돋은 줄 알아보겠네. 봉우리 달 창에 다다라 맑고 산골짜기 샘물 문에 들어와 우네. 숨어사는 삶 비록 귀히 여길 것 못되나 단지 문득 이름을 숨기고자 한 뿐이라네.

월봉책헌(月峯策憲; 1624~?) 스님의 산속 깊이 머물러 사는 일상과 그 뜻을 펴 보인 시이다. 수행자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산수 자연 안에서 나물밥을 먹고 살다보면 자연히 세상의 기쁨진 음식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음식 맛뿐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로 여기는 것들이 모두 심상(尋常)해 지기 마련이다. 그속이 숨어사는 맛이 어떠할까. 그 맛을 스님은 축각과 시각, 청각을 동원하여 대구로 묘사해 냈다. 스님의 일상은 한기 드는 잠자리와 미끄러운 뜰에서

계절을 느낀다. 한(寒)과 활(滑)의 형용사는 피부로 느끼는(觸)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보여줬다. 한 밤, 창에 비치는 달빛과 산을 울리는 샘물소리는 집안까지 들어온다. 소리가 묻고 오는 고요한 정적은 달빛의 청량함과 더불어 극대화 된다. 스님이 이렇게 유거하는 이유는 허망하게 이름에 집착하는 상(相)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한계지어지고 자신의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는 이름이라는 상(相)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세상의 재미가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몰자미(沒滋味)한 수행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름은 이미 이분법적인 사고의 시작이다. 우리가 만든 이름의 굴레 속에 혹 나를 가둬 두고 오늘도 맹목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는 돌아보게 한다.



원법 스님(문헌사·문학박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뽕 출가식 지원 신뽕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뽕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미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